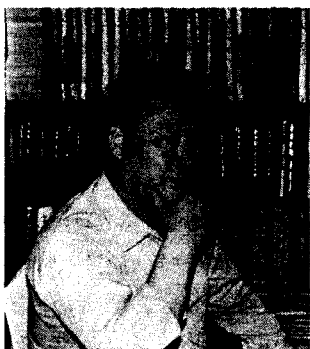


술과 雜學



吳 蘇 白

(韓國弘報研究所 · 代表)

■ 목 차 ■

- 酩酊의 용어종류
- 술통에 투신자살한 현탕王
- 소주에 밥을 말아먹는 酒豪
- 新開地와 酒田 · 선술집
- 세느강의 집단 투신 醜聞
- 잊지못할 절세의 酒党들
- 모주醫師의名言

술에 취했다는 것을 형용하는 말은 여러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말로 「돌았다」, 「갈지(之)자 걸음을 한다」 또는 「천지가 돈다」는 등이 있지만, 영어에는 보다 많은 말이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취했다는 말을 영어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종류의 어휘가 있다.

① 슬루드 또는 슬루윗(Slued and slewed) 이 말은 항해용어로,, 범선이 진로를 바꿀때에는 전진이 멈춰진다. 아울러 돛대만이 쏠리면 배가 그에 따라 기울게 된다. 다음 돛이 바람에 팽팽해지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방향을 바꾸는데 있어서 매우 우둔함을 뜻하는 말이다.

② 엘리베이트드(Elevated) 상승했다는 말이다. 이것은 아주 취한 상태를 말하는게 아니라 기분 좋을 정도로 취한 상태다. -콧노래를 부르며 거닐고 있지만 어디 썸이라는 것 썸은 알고 있는 상태다.

③ 톱·헤이비(Topheavy) 완전히 취한 상태를 말한다. 개울에 빠져어도 내집인줄 알고 파출소 앞에서 소변을 갈기기도 큰 소리 치는 주정꾼의 대명사로 쓰는 말이다.

④ 티피(Tippy) 술잔을 기울인다는 것을 Tip라고 한다. 독주를 마신다는 것을 Tipple이라고 한다. 우리말로 하면 소주나 위스키를 안주없이 마시고 돌았다는 뜻이다.

⑤ 파들드(Puddled) 술에 취해도 곱게 취하는 것과 알곳게 취하는 경우가 있다. 술마실 때의 기분 여하에 따라 취하는 성분도 좀 달라지는 것이다. 술만 취하면 떠드는 사람이 어느때는 고요히 마시고 돌아가는 수가 있다. 파들드란 말은 그런 사람이 취해 돌아가는 길임을 표시하는 말로 쓰인다. -마치 오징어나 낙지가 모래위를 덩빙덩빙 산책 하듯이

⑥ 시이 더블(See double) 말뜻 그대로 두개

로 보인다는 말이다. -질주해 오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네개로 보이는가 하면, 달이 두개로 보인다. 거기다 천지가 빙빙돈다. 이런 부류의 주정꾼은 상당히 위태롭다. 길을 못 찾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쉽고, 밤새워 자기 집앞을 뱅뱅 돌면서도 남의 집 문열기가 일쑤다.

취한 아버지-「무슨 얼굴이 두개나 너는...너 같은 자식에게 이집을 상속 할순 없다. 이놈, 지저분한 새끼같으니...」

취한 아들-「이 따위 집 상속받아 뭘해 재뭇대로 빙빙돌아 어지럽기만 한 이따위 집, 누가 상속받는데...」의 부자-이런 부자는 시이 더불의 전형이다.

⑦ 웰·오일드(Well Oiled) 탱크가 차도록 주유(注油)했다는 말이다.「어제밤 꽤 많이 마셨다」는 말을 「웰·오일드」하면 통할 수 있다. 이를테면 만취.

⑧ 모들린(Maudlin) 술이 취하면 의폐이우는 친구를 지칭하는 말이다. 흔히 여자들은 「난 술마시는 사내는 질색이야」하며 이마를 찌뜨린다. 쓸데없이 웬놈의 술을 그렇게 마시고 다니느냐고 바가지를 긁는 여성이 많은데 그말에 응답하기위해 프랭크린 박사의 명언을 여기에 인용한다.

「동물중에서 물을 마시게 되어 있는 것은 몸의 구조로 보아 짐승뿐이다. 이것은 조물주가 창조한 예술품들이다. -짐승은 입만 대면 얼마든지 물을 마시게 되어있다. 이와는 달리 손을 입에 가져다 댈수 있게끔된 인간은 모름지기 포도의 즙을 엔조이 하게끔 운명 지워진 것이다. 이를테면 이건 신의 명령이다」

이처럼 인간은 술을 마시게끔 되어있고 또 그렇게 태어났다.

술통에 투신자살한 헌팅왕

북구의 애화 속에는 술통에 투신자살한 왕의

이야기가 있다(Drinks of the wolp, pag48)

왕 「그래 극락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나?」

「네, 그건 공상의 세계입니다.」

왕 「그럼, 왜 극락이라는 말이 나와 있느냐. 난 죽기전에 극락이란 나라를 정복하고야 말테다. 극락이란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한 헌팅왕은 꼭 소원을 이루리라고 결심한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극락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극락을 알아 온 자에게 크게 부상을 해주고 증신에 기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알아온 자가 없었다. -헌팅왕은 아우 고타과의 사별때문에 몹시 슬퍼했다. 그는 매일 술로 날을 보내던 중, 하루는 왕 측근의 귀족들을 전부 초청해 놓고 큰잔치를 베풀었다. 넓은 대연회장의 한 가운데 벌꿀술이 넘치는 거대한 술통을 가져오라고 했다.

모든 손님이 흥겹게 놀고 있을대, 헌팅왕은 또 「오, 극락이 어디냐, 나는 동생마저 잃고 슬프도다」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는 자리에서 살아졌다. 얼마 시간이 흐른 뒤에 야 왕이 안보임을 알고 신하들은 당황했다. 아무리 신하들이 살살이 찾아도 왕의 자취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몇 시간 후에야 왕을 겨우 발견했다. 왕은 홀에 놓인 거대한 술통속에 빠져있었다. 왕은 바라고 바라던 극락을 발견한 셈이다. 그 책의 끝장은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다.

「King Hunding died Sweetly...」라고.

영국의 어느 동인도(東印度) 총독이 숨졌다. 총독의 시체를 매장하기 위해, 시신을 아락술(椰子汗燒酒)에 담구어서 배에 실었다. 그 배에는 항상 술 때문에 말썽을 일으키는 선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주독으로 코가 빨간 친구였다. 의폐이 술을 마시고는 주정을 부리기 때문에 선장의 꼴 머리를 앓게하는 상습자였다.

「이번에도 술취하면 발견하는 대로 곧 태형에 처할테니 알아서 해…」

선장은 출범할때부터 일러두었다. 이와 함께 사무장과 전 선원에게도 코빨갱이에겐 한 방울의 술이라도 주어서는 안된다는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처럼 강하게 단속을 했는데도 조금 후에는 굉장히 취한 코빨갱이 친구를 발견했다. 도대체 어떻게 술을 마셨는가 이것이 의심스러웠다.

「이녀석아, 또 술을 마셨구나? 이번에는 용서 못해. 누가 너에게 술을 주었나?」

선장은 주지 말라는 술을 준 놈부터 찾아내서 태형에 처하려고 했다.

「선장의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는거야?」하며 사무장을 불러 낱알이 조사토록 했다. 그러나 코빨갱이에게 술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선장은 코빨갱이에게 물었다.

「누가 술을 주었는지, 자백하면 네 죄는 용서해 준다.」

「선장님 정말입니까?」

「그래, 빨리 말해봐, 용서해 준다.」

「그럼, 말하지요. 사실은요 총독각하의 관속에서 해해…」

「뭐? …지독한 쥐새끼군」

「정말입니다. I take the governer」라고 천연스럽게.

이쯤되면 증독자가 아니라 주성(酒聖)이라고 해야 할게다.

소주에 밥을 말아먹은 酒豪

내가 존경하는 어떤 선배는 여학교의 쟁쟁한 교장선생님이시다. 이 양반은 당당한 모주다. 이 교장은 술만 마시면 으례이 나체파가 된다. 그렇다고 육체미가 있는 편도 아닌데 벗기를 즐긴다. 술이 거나해지면 몸이 근질근질해지는

모양이다. 벗는 것 만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귀중품을 비교연구 하자니 질색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일급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몇 사람 안된다. 그러기에 나는 교장선생을 만나면 농담을 잘 건다.

「선생님은 왈가닥 남자 중고등학교 교장감인데…여학교 교장은 아까와요.」

문제의 여학교 교장의 성함을 여기 밝히고 싶지만, 교육상 또는 여러모로 뜻하는 바 있어 영구히(?) 보류해 둔다. 실상 주당들은 거의가 나체파들인지도 모른다.

나죽이야기가 나온김에 덧붙여 들 것은 역시 저 유명한 네 문인의 나체행진이 아직은 신기록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수주(樹州), 공초(空超), 횡보(橫步), 성제(省齊). 네 사람이 별판에서 만취끝에 소나기를 피하다가 기상천외의 생각이 떠올랐다. 공초의 기발한 착상, -하늘과 인간사이를 가로막은 옷을 땡개치자는 제안이 나왔다.

먼저 시인 공초가 흙벽 젖은 옷을 벗어 갈라리 찢어 버렸다. 네 사람은 꼭같이 행동했다. 몸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 네 사람들 들판에 있는 소를 집어타고 성문안으로 일로 진격했다. 백주의 나체행진은 명륜동 성균관(현재: 成大) 부근에서 저지를 당했다.

일제의 무단정치하에서 있었던 일이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얼마나 멋이있는 일인가. 네 사람의 얼굴을 더듬어 보면 더 실감이 난다. 네 사람 중 세분은 이미 가고 성체만 남아있다.

우리 주변에서 흐뭇한 냄새나는 인간들이 하나 둘 자취를 감추는 건 어쩐지 허전하기만 하다.

新開地와 酒母 · 선술집

개인에 있어서 술은 생활의 예술이다. 술은

무질서한 것이고 추한 것이라고 혹평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술은 술로서의 길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술을 마시므로 인간이 별거승이로 된다는 것은 술만이 간직할 수 있는 하나의 오묘한 철학이다.

인생은 짧고 명정(酩酊)은 길다. 내일의 주당을 위해 라트라비아타를 노래부르자.

여인숙은 나그네를 머물게하고 밥을 파는 곳이다. -선술집은 도시에 달려 있다. 영업의 성질상 여인숙은 새로운 손님이 찾아드는 것을 반기지만, 선술집은 이웃에서 오는 단골손님을 반기는게 상식처럼 되어있다.

이런 여인숙과 선술집의 본질적으로 다름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면 다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아무 모순없이 쉽게 받아들일수 있을 것이다.

토마스 버크는 이렇게 말했다.

「큰길 초입 50마일의 영국땅을 개통하면 벌써 최초의 영국식 여인숙이 생겨 버렸다.」

다음은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의 말이다.

「영국의 주정꾼이 비틀거리며 지나간 거리에는 어느새 영국의 큰길이 생긴다.」

만일 여인숙이 없는 곳에 큰길이 생긴다고 해도 「좋은 술에는 간판이 소용없다」는 옛 말대로 큰 길은 틀림 없이 로마가 아니고 선술집 앞까지 곧장 뻗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삼수갑산이며 60년대의 개통된 함백선(咸白線)···정선(旌善)일대의 벽촌에도 이와 비슷했다. 화전민이며 공사터 일꾼들의 뒤를 따라가는 선술집 주모들이 이동하고 있다. 개척과 주막과 짙은 화장을 한 여자는 언제나 의중계 종군하고 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랜 여인숙의 하나가 조지하우스다 워민스터에서 영국 제일의 온천장 버스시로 통하는 노변에는 노튼 세트 필립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 조지하우스가 있는데 최근에는 새로 단장해서 면목을 일신했다. 이 조지 술집은 1397년의 옛 시절부터 영업감찰

을 갖고 있다고 뽐내고 있다. 그 거대한 집 구조를 미루어 보아도 흔히 있는 시골 주막집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가까운 곳에 옛 헨튼·차터하우스(宗團)의 영화를 자랑하던 폐허가 있다. 조지 술집도 유서를 캐고 보면 사실은 이 절(寺)에서 부터 역사가 생긴 것이다. 이틀데던 14세기에 중들의 손으로 세워진 것이 조지 여인숙. 한편에서는 길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에서 해마다 크게 한번씩 열리는 양털장터로 장소를 제공했다. 이 집에 한번 들어서면 대뜸 2층에 텅빈 강당?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시회(市會)의사당정도의 크기니까 대단하다. 강당처럼 넓은 2층은 몇백년 동안이나 양털 장터로 사용해온 곳이다. 이것은 헨튼 차터 하우스 종단의 돈벌이가 되어 왔다.

하디씨는 「성교(聖敎) 부정(不定)이며 번뇌는 불멸」이라고 말하였는데, 조지는 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를 실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조지 술집은 어엿하고 우람한 모습으로 번창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립하고 영화를 자랑하던 대사원은 이미 폐허의 언덕에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 버리지 않았는가.

선술집 주인으로서 절세의 명성을 떨쳤던 사람은 구세군의 창립자 부스대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1880년대 초기, 구세군을 시치거리의 울드이글 푸레주어 그라운츠(환락가의 하나) 자리에 두게되었다.

그때, 계약문서에 따라 울드·이글이라는 선술집을 떠맡지 않을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남은 동안 영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술집의 면허는 가급적 빨리 취소한 것은 물론이지만.

-여관집 안주인이 하나의 계급으로 역사상에 큰 구실을 맡은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여기 수 많은 생명을 구한 이야기 하나가 있다.

1558년 어느날 밤, 치체스타시 볼르 포스츨라는 여관집에 좀 보기 드문 손님이 머물었다.

그 손님은 세인트폴 사원의 학두(學頭)라는 직위에 있는 헨리·콜 박사였다. 그는 아일랜드로 여행하는 도중이었다.

그날 밤 치체스타시의 시장이 찾아왔으므로 박사는 시장과 마주앉아 포도주를 기울이며 이야기 끝에 그의 이번 여행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사 말에 따르면, 그리 메리 여왕으로부터 아일랜드의 신교자(新敎者) 모두를 불태워 죽이라는 칙서를 받아갖고 아일랜드로 가는 도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박사는 자기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로 몸에 지니고 있던 칙서까지 내 보였다. 그런데 이 여관집 마나님이 열쇠구멍으로 몰래 들었는지 하여튼 헨리 학두의 사명을 알아차리고 말았다.

여관집 마나님에게는 아일랜드의 더블린시에 단 한분의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는 열렬한 신교자였다. 그런 까닭에 마나님은 이 밀서가 다부린시에 다다르게 될 것을 방해 할 결심을 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학두가 침대에서 깊은 잠에 떨어졌을 때, 마나님은 학두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 밀서를 살그머니 빼버리고 짓궂게도 한패의 트럼프를 슬쩍 메꾸어 놓았다. 하여튼 아무 영문도 알 턱이 없는 학두는 이튿날 길을 떠나 며칠뒤엔 아일랜드에 도착했다. 종교회의 의장 각하에게 칙서를 제출하는 순간까지 한번도 가방을 열어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었는지.

칙서와 바뀌어진 트럼프를 본 의장 각하는 말했다.

「귀하는 일단 귀국하셔서 다시 한번 칙서를 받아 오도록 하시지요. 그 사이에 이쪽에선은 트럼프 놀이나 하고 있을 테니까요.」

얼굴이 빨개진 학두는 허둥지둥 런던을 향해 떠났다.

그러나 행운은 더블린의 신교자들에게 있었다. 학두가 다른 칙서를 내려 받기 전에 메리 여왕은 세상을 떠났고 학살의 계획도 끝나버리고 말았다.

세느강의 집단투신 宣言

모리엘은 프랑스의 작가이며 배우이다. 어느날 모리엘은 여러 친구들과 함께 만찬회를 갖게 되었다.

술이 취하자 이들은 큰 소리로 철학을 논하고 인생론을 늘어 놓았다. 취기가 절정에 이르자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비탄의 한숨소리와 함께 그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해졌다.

누군가가 입을 열었다.

「이 귀찮은 세상, 사는것 보다 차라리 깨끗이 세느강에 몸을 던져 죽는 것이 얼마나 시적(詩的)인가!」

그의 말이 그치자 모두들 약속이나 한듯 노래를 불렀다. 노래의 곡목은 「죽음의 찬미」

노래는 끝났다. 주정뱅이 문인과 철학자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번엔 철학자가 클래스를 높이 들며 입을 열었다.

「자아, 그럼 우리 이렇게 떠들고만 있을게 아니라, 우리 모두 세느강으로 가세.」

옆에 있던 친구가 맞장구를 쳤다.

「웁소! 모두 지체없이 세느강으로 가세 일제히 투신자살 하자.」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

「죽음의 맹세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자.」

억제할 수 없이 감격한 그 주정뱅이들은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 모두 세느강으로 달려가려고 서둘렀다.

당황한 것은 모리엘, 감격과 흥분으로 뒤범벅

이 된 주정뱅이들은 넉넉히 투신하고야 말것 같았다.

모리엘은 묘안이 떠올랐다. 그는 손뼉을 짹 짹 쳐서 주의를 불러 일으켰다. 그는 주정뱅이들을 둘러본 뒤 말문을 열었다.

「내 말쯤 들어봐. 이렇게 숭고한 일을 감행함에 있어서, 우리들 끼리만 해치워 버린다면 후세의 역사에 남을 근거가 없으니...그러나 날이 새면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뛰어 들어가기로 하고, 날이 밝을 때까지 마지막 술이나 더 마시는게 어떤가?」

주정뱅이들은 모리엘의 말이 그럴듯 하게 들렸다.

「웁소, 모리엘의 말대로 싹껏 술이나 더 마신 뒤, 세느강으로 가자.」

역시 모리엘의 말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았다. 해가 중천에 높이 떠올랐다.

술에서 깬 주정뱅이들은 음료수를 찾아 마셨다. 잊지켜 일들은 꿈속의 일인양 싹 잊어버렸다.

잊지 못할 절세의 酒黨

주호(酒好)의 한 사람인 내 친구 정은 대학 사회과학대학까지 나온 재주꾼이다. 이 친구는 사회학과를 전공하면서도 주당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의 견해는 매우 도전적이다.

이태백이 술 3천작을 마시고 오강의 말을 건지러 들어가다 죽었다는 말을 들을 때 누구나 이태백을 주호(酒豪)로 단정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태백이 마신 주량이 문제가 아니라, 술잔이 문제였다. 태백의 술잔은 일본사람들이 쓰는 정종잔 보다도 더 작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3천잔은 엄청나다.

친구 정의 학설에 따르면, 이 3천잔의 술은 빼갈이 아니고 탁주 비슷한 것이다. 막걸리를 꿩알만한 잔에 3천잔쯤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중국엔 탁주 같은 술이 없었다고 반대론을 내세우는 사람에게 정주호(丁酒好)는 이렇게 반격한다. 장비(張飛)가 천하의 주장(酒將)이었다는 사실은 삼국지 애독자 수억명이 증명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장비가 말술로 통나팔을 불고 여포(呂布)한테 성을 빼앗겼다는 말이다. 산동 빼갈로 통나팔을 불고도 살 수 있었겠느냐 말이다. 중국식 표현엔 「백발삼천척」인 것이 많다. 이러한 과장은 장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어쨌든 중국에도 막걸리 같은 술이 있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건 그렇고 장비는 허리춤에 늘 옥으로 만든 술잔을 차고 다녔으니 어지간히 주호(酒好)인건 틀림 없다고...

간힌 몸으로 대들보에 매달린 임격정의 호통은 통쾌하다. 적들은 임격정을 대들보에 매단채 자기네들 끼리만 술을 마셨던 것이다. 임격정은 사발로 술을 마셨다. 정주호는 일일이 붉은 줄을 친 책을 펴 가면서 고증을 들었다. 그는 백호(白湖)를 높이 평가했다. 술과 감투를 바꾼 백호를 일등주호(酒好)로 추천 하는데 아낌이 없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명정(酩酊)의 세계에는 계급도 국경도 피부빛갈도 없다는 것이다.

술은 무조건 선량하다는 것이다. 악인이 마셔도 살인 강도가 마셔도 술은 보다 선량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술을 마심으로써 별거승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술을 조건부로 마시는 것은 더럽고 구역질이 난다고 강조했다.

정주호는 주당의 서열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酒黨·어른 들하는 일이 신기해 보여 맛도 모르고 마시는 친구들. 취기도 있고 애교도 있다.

酒卒 · 지금으로 치면 신병훈련을 마치고 보충대에 대기중.

酒軍 · 술꾼. 제법 마신다는 소릴 듣는다.

酒豪 · 몸 전체로 퍼마시고 공짜 술을 잘 마신다. 대학시절을 생각해 보자.

酒士 · 제법 세상 물정도 알고 술의 효용도 아는 친구.

酒監 · 후배에게나 친구에게 술을 사주고 즐기는 나이의 층. 상당한 주량이고 인생 경험담과 따듯한 신뢰감으로 단연 주석의 주인공이 된다.

酒將 · 자타가 공인하는 센 술로 이때쯤 되면 이름밑에 고유명사처럼 따라다녀 화제에 오르고 그 덕택으로 인기는 더 올라간다.

酒好 · 2, 30년 함께 살아오는 동안에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경지.

酒仙 · 죽고 난 다음 비로소 받은 평가. 후보자는 많지만 사실 몇 없다.

내 주변의 친구나 선배들중에도 명정가(酩酊家)들이 상당히 있다.

임명두(任明斗)라는 친구는 어느해 겨울 술에 만취되어 야간에 집을 찾아왔다. 이 친구는 술을 마시면 의례이 안경다리를 산산조각 내는 버릇이 있다. 안경다리가 요절날 무렵이면 그의 술은 극도에 다다른 것이다.

그는 내 옆에 누워 그냥 잠들고 말았다. 아침에 일어났다. 아내는 오만상을 해가지고 뭐라고 중얼거렸다.

이불과 요를 보니 완전히 먹탕이다. 까닭은 간단했다. 소변 때문에 밖에 맨발로 나갔던 친구가 연탄재를 밟은 채 그냥 잠자리를 찾았던 것이다. 이날 따라 진눈개비가 내려 뜰에 쌓여 놓았던 연탄은 곤죽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흰이불과 담요엔 검은 발자국이 수 없이 도장 찍혔다. 사태를 이쯤 저질러 놓고도 그는 변명을 했다. 전혀 기억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발목을 잡고 증거로 발바닥을 보였다.

「이래도 현행법이 아냐?」

장덕금이라는 내 친구(기자)는 주호에 속한다. 맥주 정종 같은 건 사이다 같아서 마실 맛이 없어 늘 빼갈과 소주다. 체구가 남달리 커서 애칭 맥아드장군으로 통했다. 이 친구는 소주를 작은 잔으로 마시는 법이 없다.

맥주잔 같은 것으로 들이킨다. 집에서 혼자 저녁밥을 먹을 때도 반주를 해야 한다. 어떤 때는 그것도 부족해서 밥그릇에 술을 부어 버린다. 술비빔밥이 된다. 그는 결국 술때문에 가까운 나이에 가고 말았다. 수술후 친구들이 찾아갔을 때 그는 자신만만하게 며칠 후 또 한잔 하자고 주호답게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유언이 되고 말았다. 그의 수술을 맡은 주치의의 이야기가 또 걸작이다.

「이 분이 살아 있는 것만도 이상해요. 의학적으로 보면 죽어있어야 할 사람인데, 업연이 살아 있으니까. 한말로 위장이 벌집처럼 뚫렸습시다.」

조필규라는 내 친구(기자)는 부산 출신이다. 이 친구는 대단한 모주다. 1·4후퇴 때 오랜만에 부산서 만나 밤을 지새우며 마신일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요가 물결레처럼 젖었다.

방바닥은 그냥 물난리다. 물그릇을 엮지른 것 같았다. 그러나 물 한 그릇의 양이 아니다. 목측으로도 5리터 이상은 될 것 같다. 엮지른 액체의 냄새가 또 코를 찌른다. 의심할 여지 없는 오줌이었다. 이런 사건이 있는 뒤부터 나는 그에게 오줌싸개라는 애칭을 붙였다.

오줌싸개와 한번은 부산역전에 있는 2층집에서 술을 마시다 사건을 일으켰다. 곧드레만드레가 되도록 마시던 오줌싸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운두가 낮은 창문을 열어 젖혔다. 2층에서 그냥 소변을 외계로 갈기는 것 째은 있을 법한 일인데 그게 아니다. 2층 창문을 연 오줌싸개는 그대로 공중을 디디고 밑으로 다이빙 했다. 한길로 나가 떨어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운집했다. 병원으로 운반하려는데 오줌싸개는 뿌리치며 일어났다. 「누가 죽었나, 왜들 이래」

오줌싸개는 2층에서 다이빙 했는데도 멀쩡했다. 그것도 아스팔트에 나가떨어졌는데. 오줌싸개는 2층을 아래층인줄 착각했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오줌싸개는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며, 신문사에 나타났다. …천하의 오줌싸개도 얼마 전부터는 금주선언을 했다는 슬픈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권오철이라는 친구(기자)는 종로경찰서 현관에다 대고 오줌을 갈긴 일이 있다. 목격자인내 입장이 난처했다.

보초순경도 어이가 없어서 입을 벌리고 말았다. 모주 코주부 영감은 70평생을 소주파로 마쳤다. 코주부 영감은 오랜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코주부 영감의 운명할 시간은 시계 초침처럼 다가왔다. 코주부 영감은 어느날 저녁 아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했다.

「너도 내가 얼마나 술을 즐기는지 알고 있겠지. 아들이네 내게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 소주 대포 한잔만 꼭 마시게 해다오. 마지막 소원이다.」

아들은 코주부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렸다. 대포잔에 소주를 찰랑찰랑 넘게 가져왔다. 코주부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는 커녕 몸을 가누지도 못 했다. 하는 수 없이 아들은 숟가락을 가져왔다.

어린이에게 약을 먹이듯 소주를 떠서 아버지 입으로 옮겼다. 아무리 병석이라지만 주호 코주부 영감이 숟가락 술이 만족할 수 있었겠는가.

「지렁이 고무줄을 가져와라.」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마디금이 선명히 보이는 지렁이 고무줄을 가져왔다. 어린이들에게 양젖을 빨리듯 소주를 마시려는 것이다.

코주부 영감은 순식간에 대포 한잔을 깨끗이 빨아 넘겼다. 미소를 지으며 코주부 영감은 숨소리를 멈추었다. 그는 이미 영영 잠들었다. 코주

부 영감은 늘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술은 정력이라고…정력이 없을 때는 술도 끝난 것이라고. 코주부 영감은 운명하는 순간까지도 정력을 다했던 것이다.

철수네 아버지도 지독한 모주였다. 고개 너머 마을 초상집에서 아침부터 꼬박 열두시간을 마셨다. …공교롭게도 이날 밤 철수네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다. 철수는 비보를 안고 아버지를 초상집으로 찾아갔다.

「응,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뻘이구나. 알았다 곧 갈께.」

철수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식구들이 총동원되어 수색전을 벌렸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고개 마루턱 못미처 언덕길에서 덩굴고 있었다.

철수 아버지는 있는 정신을 다해서 고갯길까지 왔던 것이다. 그는 갈지자 걸음을 멈추며 도전하듯 입을 열었다.

「요놈의 고개가 늘 말쟁이란 말야…문제꺼리란 말야.」

다음 순간, 철수아버지는 펄쩍 주저앉았다. 전신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별을 쳐다보며 기분 좋게 노래를 불렀다.

「에하라, 노하라.」

철수 아버지는 늘 이 고개에서 걸렀다. 마루턱 일보 전에서 쓰러지곤 했다. 아버지의 죽음을 듣고도 에하라, 노하라를 부른 철수아버지도 보통 주당은 아니다.

듣고도 에하라, 노하라를 부른 철수아버지도 보통 주당은 아니다.

또 다른 주당 이야기를 꺼내보자. 만판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K기자는 집 근처까지 와서 완전히 누워버렸다. 여름철이었다. K기자는 그만 언덕길에서 주저앉았다. 옷을 차근차근 벗어서 전신주에 걸었다. 양복걸이 인줄 알았나 보다.

옷을 훌랑 벗었다. 펜티 바람에 큰땀자로 언덕

길에 누워서 코를 골았다. 야경꾼과 순찰 경관이 K기자를 발견하고 파출소로 옮겨갔다.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어두컴컴한 새벽이었다. 경관으로부터 까닭을 들었다. K기자는 순경과 함께 어제밤 그 위치로 달려갔다.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그 위치는 바로 K기자집과 50미터 거리를 둔 언덕길이었다. 전신주엔 대통령 옷이 매달려 있었다.

모주 醫師의 名言

샤모엘 가이스는 18세기 초엽 런던의 이름난 의사였다. 가이스는 대주가였다. 늘 얼굴에 알콜분이 가지지 않았다.

그는 환자들을 잊어 버리고 술을 마시는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어느날 밤, 그는 클럽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친구들은 가이스에게 입버릇 처럼 물었다.

「자네, 오늘밤엔 환자 없나?」

이럴 때마다 가이스의 말은 간단했다.

「술마실땐 환자애긴 하지마. 그런건 싹 잊어야 해.」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의사 가이스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그러나 가이스는 나타나지

않았다.

환자들은 아우성 쳤다.

참다 못한 간호원이 클럽으로 달려갔다. 가이스는 간호원을 보고도 태연했다.

「선생님, 이제 돌아가실까요?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호원이 달래듯 말했다. 가이스는 클래스에 술을 가득 따르면서 넌지시 입을 열었다.

「아니, 오늘밤은 내가 가거나 안가거나 그리 큰 문제가 아니야.」

간호원이 가로막듯 툭 쏘아 붙였다.

「선생님, 약주가 높으셨어요. 환자들이 아우성입니다. 빨리 가셔야 해요.」

「이봐, 간호원. 환자중의 아홉 명은 중태니까 세계의 의사들이 다 가보았자 고칠 수는 없을 것이고, 나머지 여섯명은 경과가 좋으니까 어떤 의사들이 간들 염려 없단 말이야, 알겠나, 간호원.」

간호원은 말문이 막혔다. 의사 가이스는 클래스의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가이스의 말은 과연 명언이었다. 대의(大醫)는 생명의 대세(大勢)를 늘 잘 파악하고 있었다.

「배는 진수(進水)할 때부터 절반은 가라앉은 법이다.」

뛰어난 선장(船長)의 명언이 떠오른다.

언제 어디서나 간첩신고 생활화하자